

번역류형에 대한 일반적리해

리 혁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번역기량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번역을 많이 해보면서 여러가지 묘리와 수법을 체득하여야 하며 어떤 종류의 글이든지 잘 번역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10권 486페이지)

번역을 잘하자면 번역류형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지고 여러가지 류형의 본문에 대한 번역묘리와 수법을 체득하여야 한다.

번역은 담당자와 실현형식, 번역목적과 원문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류형들로 갈라진다.

번역은 무엇보다먼저 담당자에 따라 인공번역과 기계번역으로 구분한다.

1950년대에 기계번역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인공번역이라는 개념이 설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에 와서 기계번역과 구별하여 종래의 번역을 인공번역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인공번역은 사람에 의하여 직접 진행되는 전통적인 번역이다.

기계번역은 컴퓨터를 리용하여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자동적으로 전환하는 번역이다.

기계번역은 주어진 시간에 비해 번역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번역에 대한 질적요구가 높게 제기되지 않으며 원문이 표준화된 경우에 널리 적용된다.

기계번역은 1933년에 처음으로 제기되고 1946년에 번역기계가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1954년에 250개 단어를 보관할수 있는 첫 번역기계가 나왔다. 1967년에 이르러 원문을 간략화하고 코드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오늘날 기계번역연구는 시험단계를 벗어나 실용화단계에 들어섰으며 인공지능번역방향으로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기계번역은 단어를 따라가며 번역하고 본문의 표층을 직선적으로, 기계적으로 전환하는 어휘번역단계, 문장합성을 할수 있는 번역단계, 표면합성을 할수 있는 문장표층번역단계, 의미번역단계, 알고리즘에 기초한 번역단계를 거쳐 발전하고있다.

기계번역은 일반적으로 인공번역보다 3배 빠른 반면에 사고와 창조를 모르는 번역기계들을 통하여 번역이 진행된다는 부족점이 있다.

번역하기 힘든 원문이나 번역프로그램에 없는 단어나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람이 직접 필요한 준비작업을 해야 하며 기계번역한 번역문도 반드시 사람이 심의, 가공, 윤색해야 한다.

번역은 다음으로 실현형식에 따라 입말번역과 글말번역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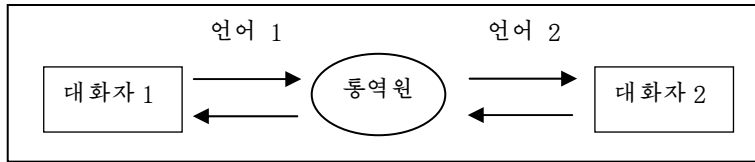
입말번역의 실현형식, 수단이 말소리라면 글말번역의 실현형식, 수단은 글자이다.

글말번역은 번역자가 한 언어의 글말자료를 다른 언어의 글말로 전환시키는 번역이다.

입말번역(통역)은 각이한 언어를 소유한 사람들사이의 의사소통을 말소리에 의거하여 실현시켜주는 번역이다.

통역은 말소리를 매개수단으로 하고 대화쌍방을 직접 대상하여 진행되는 번역활동이

다. 통역원은 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대화자 1)과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대화자 2)사이에서 중계자의 역할을 놀며 대화자 1이 말하는 언어를 대화자 2의 언어로 옮겨 전달하는 사람이다.



통역은 한 언어로 표현된 사상감정을 접수하고 리해하여 그것을 다른 언어의 등가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통역에서는 상대방의 나이와 성별, 지식정도와 정치적식견, 사회적지위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통역은 의거하는 감각기관에 따라 청각통역, 시각통역, 청시각통역으로 나누며 통역형식에 따라 일반통역과 순차통역, 동시통역으로 가른다.

한편 통역방법에 따라 전문통역과 요지통역, 중계통역으로 나누며 통역내용에 따라 안내통역과 회의통역, 면담통역 등으로 구분한다.

일반통역은 일정한 틀이 없이 회화의 중계적역할을 노는 비전문적통역을 말한다. 일반통역은 원어를 들으면서 그것을 목적어로 재구성하여 입말로 옮기는 청각통역형식으로서 흔히 참관이나 안내통역에 리용된다.

순차통역은 담화의 매 단락이나 담화가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 통역하는 방식이다. 순차통역에서는 담화내용이 길면 단락을 끊어서 발언자와 통역원이 번갈아 말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통역원은 발언자의 담화내용의 요점을 능숙하게 적고 즉시 재생하여 통역하게 된다.

동시통역은 발언이 시작되는 즉시에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통역으로서 순차통역에 비하여 시간절약, 회의의 원활한 운영, 생동성이라는 우점을 가지고있는 반면에 통역내용의 정확성측면에서는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통역은 글말번역과 다른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통역은 시간적여유의 견지에서 글말번역과 차이난다. 글말번역에서 사전과 참고서를 리용하고 문장들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며 의미와 표현형식에 충실하기 위하여 글을 다듬고 완성시킬수 있다면 통역에서는 사전이나 참고서를 리용할수 없으며 말을 다듬고 완성시킬 시간적여유를 가지지 못한다.

통역과 글말번역은 그 언어환경에서도 차이를 가진다.

통역원은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자기앞에 놓고 직접 대상한다면 번역원은 보이지 않는 존재(저자와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통역원은 대화자들의 반응 즉 억양과 력점, 표정과 몸동작에 따라 그 의도를 정확하게 리해할수 있을뿐아니라 그 자리에서 반복설명이나 보충설명도 할수 있다.

통역에서는 이야기내용을 짧은 시간에 전달해주어야 하기때문에 내용의 론리적구성을 제때에 정확히 포착하고 원만히 전달하기 위한 여러가지 원칙적요구들을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통역에서는 두 언어의 문화적배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소유해야 하며 담화내용을 파악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말뜻을 의식적으로 증폭시켜야 하며 대화자들이 쓰는 논리적이음말들을 통하여 담화내용을 예측하여야 한다. 통역의 전과정에서는 요점적기를 잘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요점적기는 기억력의 제한성을 극복하게 하며 발언내용에 담겨진 의미의 논리적연계를 정확하게 전달할수 있게 한다.

번역은 다음으로 번역목적에 따라 일반번역과 선택번역, 참고번역과 편집번역, 창작번역으로 구분한다.

일반번역은 원문전체를 번역하는것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번역은 일반번역이며 이것은 대부분의 번역자들이 진행하는 중요한 번역류형이다.

선택번역(부분번역)은 원문의 요점이나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번역하는것을 말한다.

선택번역의 특성은 출판부문이나 편집원, 독자들이나 번역자 자신의 요구에 따라 원문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번역하는것이다.

참고번역은 출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고를 위해서만 진행하는 번역이다. 일반번역과 선택번역, 편집번역도 참고번역으로 될수 있다.

참고번역에서는 원문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이 첫째가는 요구로 나선다. 참고번역문은 대체로 제한된 성원들을 독자로 하기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할것을 요구한다.

참고번역은 비교적 자유로운 특성도 가진다. 참고번역은 일반적으로 경험있는 번역자가 진행하며 참고번역문리용자의 요구에 따라 번역자는 다양한 방법과 수법, 번역량을 자유롭게 결정한다.

편집번역은 번역자가 하나의 원문내용을 자기 말로 련결시키거나 여러 원문에서 뽑은 필요한 부분들을 자기 말로 엮어 완성하는 번역이다. 편집번역에서는 번역문에 원문내용이 80%이상 들어있어야 한다.

편집번역은 원문의 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같은 주제의 원문들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 진행한다. 원문의 량이 많아 일반번역문으로 출판할수 없는 경우에 번역자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만을 선택하여 자기 말로 엮는다. 여러편의 원문속에 필요되는 같은 부류의 내용들이 들어있다면 번역자는 그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결합시켜 풍부한 내용을 가진 번역문을 만든다.

편집번역은 원문내용이 산만하거나 글이 지나치게 딱딱한 경우에 진행한다. 원문내용이 짜이지 못하고 널려져있는 경우 요점들을 모아 합리적으로 련관시켜 짜인 번역문을 만든다. 그리고 논리적사고와 분석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읽을 맛이 없는 원문을 번역할 때에는 번역자가 형상적인 어휘들을 적극 활용하여 흥미진진한 번역문을 만들수도 있다.

창작번역은 오늘날 새롭게 출현하여 발전하고있는 특수한 번역류형이다.

창작번역이란 말그대로 창작식의 번역으로서 원문에 없는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고 자기 말로 엮어서 완성하는 번역이다. 창작번역은 번역자가 자기 말로 엮는 부분이 편집번역보다 훨씬 더 많은 특성을 가진다.

편집번역과 달리 창작번역에서는 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상 리탈을 어느 정도 허용한다. 실례로 성구유래집을 번역할 때 번역자는 독자들의 리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성구가 나올 당시의 시대상과 인물의 래력 등을 자기 말로 엮어 보충할수 있다. 창작번역을 하는 번

역자는 원문내용이 번역문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하게 하여야 한다.

번역은 다음으로 원문종류에 따라 사회정치본문번역과 공식사무문서번역, 신문방송기사번역과 문학예술작품번역, 과학기술문서번역 등으로 구분한다.

이것은 사회정치분야, 공식사무분야, 신문보도분야, 문학예술분야 등 교제분야에 따라 형성된 기능문체별본문들에 대한 번역이다.

여러 류형의 본문들에는 해당하는 문체론적수단과 문체론적수법들이 체계화되고 고착되어있으므로 그에 대한 번역에서는 문체론적요구를 정확히 지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오늘날 개별적인 어휘나 단어결합, 문장에 대한 번역의 범위를 벗어나 문체별에 따르는 본문번역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있다.

우리는 번역류형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그에 따르는 번역방법과 수법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하고 그것을 실천에 적극 활용해나가야 한다.